■ 교육

조기전형 선발 인원 늘리는 명문대

인재확보, 안정적 학사·재정 운영 위해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정시 전형보다 조기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더 유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기전형은 정시전형에 비해 합격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입시전략이 철저하지 않으면 고배를 마실 수 있다.

IvyFocus(ivyfocus.com)에 따르면 각 대학들이 신입생 선발에서 조 기전형인 '얼리 디시전 (ED·Early Decision)' 과 '얼리 액션 (EA·Early Action)' 지원자의 비중을 갈수록 높 이고 있어 정시전형 합격률은 그만 큼 더 떨어지고 있다.

대학들이 조기전형 입학생의 비율을 높이려는 이유는, 조기전형의 경우 합격자가 실제 등록으로 대부분 연결되기 때문에 신입생 정원의 상당 부분을 조기전형 합격자로 채워놓는 것이 학사·재정 운영에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학생이 실제 등록할 때까지 기다려야 신입생 규모 등이 결정되는 정시전형 학생 선발도 좀 더 여유 있게할수 있다.

또 우수한 지원자가 조기전형에 주로 몰리기 때문에 타 대학과의 인재 확보 경쟁 측면에서도 조기전형 선발을 늘리고 있다. 저소득층·소수계 지원자에게 장벽이 된다며 2006년 '얼리 디시전' 옵션을 포기했던 하버드·프린스턴대는 경쟁 명문대에 우수 학생을 계속 뺏기자 결국 이 프로그램을 다시 도입하기도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딘가로 진 학할 기회를 놓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조기전형에 응하고 있다는



것이 진학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더 구나 최근 정시전형 합격률이 한 자 리 수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 학생 들이 조기전형에 지원할 동기가 더 욱 강해졌다는 것.

또 조기전형 지원자는 합격하지 못 해도 보류(defer) 결정을 받으면 추후 정시전형 지원자들과 함께 다시 심 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더 많다는 장점도 있다.

이런 이유로 공통지원서(Comm -on Application)를 사용한 학생의 50%가 최소한 한 곳 이상 대학의 조기전형에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시전형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 질 전망으로 대입 수험생들은 예전보다 입시전략을 더 앞당기고 철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입시전문가들은 전문가들은 지원 할 대학이나 선택할 전공에 대해 11 학년 2학기에 대략적으로 결정하고 에세이의 경우도 12학년 전 여름방 학에 드래프트를 작성해 놓아야 여 유를 갖고 입시준비를 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또 자신의 실력 등을 냉정 하고 파악해 합격 가능성이 높고 등 록을 해도 후회하지 않을 대학을 신 중하게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하며 특히 얼리디시전의 경우 얼 리액션과 달리 합격 후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 다고 강조한다. ■ 자동차

SUV운전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 차(SUV)는 일반적으로 차 체가 높고 무거워 승용차 보다 움직임이 둔하다. 이 런 특성 때문에 스티어링 반응과 핸들링이 둔하기 쉬운데, SUV에 익숙하지 않다면 미리 연습을 통해 차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운전하는 것이 좋다.



■ 방향 바꾸기 전에는 충분히 속도 줄

SUV는 일반 승용차보다 최저지상고 와 무게중심이 높고 서스펜션이 상하로 움직이는 정도도 더 크다. 또한 대부분 너비와 길이가 비슷한 일반 승용차보다 무겁다. 이런 물리적 특성은 차의 움직 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반 승용 차를 몰 때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 다. 차선을 변경하거나 커브를 돌 때에 는 미리 충분히 속도를 줄인 후에 스티 어링 휠을 부드럽게 조작해야 안전하다.

일반적으로 SUV는 일정한 각도로 방향을 틀 때에 승용차의 스티어링 휠보다 더 많이 돌리게 되어 있다. 이런 특성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는 방향을 바꾸기 시작할 때에 예상했던 것보다 차가더디게 방향을 트는 것을 느끼고 뒤늦게 스티어링 휠을 많이 돌리기 쉽다. 저속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고속에서는 이런 조작이 언더스티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제동을 할 때에도 차의 움직임에 신경을 써야 한다. 차체가 크고 무거울 뿐 아니라 서스펜션의 상하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급제동할 때에는 차체가 앞으로 쏠리는 현상이 심하고 무게중심이 앞으로 이동하면서 브레이크가 밀리는 느낌이들기 쉽다.

■ 스티어링 휠 조작은 항상 부드럽게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피시테일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피시테일은 차의 좌우방향 무게 중심 움직임이 흐트러지면서 뒷바퀴가 충분한 접지력을 확보하지 못할 때 차체 뒤쪽이심하게 흔들려 스티어링 휠 조작으로도차의 움직임을 바로잡을 수 없는 현상이다. SUV는 차체가 높아 일반 승용차보다 피시테일 현상이 일어나기 쉬운데, 일반 승용차는 무게 중심이 낮아 피시테일 현상이 일어나면 스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SUV는 피시테일이 전복사고로이어지기 쉽다.

피시테일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스티어링 휠을 급조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SUV의 스티어링 휠은 속도가 빠르면 빠를 수록 점점 더 부드럽게 조작하는 것이 원칙이다.

도로상에서는 큰 차체 때문에 여러 차로가 있는 도로에서 사각에 있는 차를 발견하기가 더 어렵고, 차체 길이를 가늠하기 어려워 추월할 때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또한 후방 카메라가 없는 차는 좁은 골목에서 달리거나 주차할 때에 차체 뒤의 장애물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이런 점을 고려해 사이드 미러는 일반 승용차보다 차체 아래쪽이 좀 더 많이 보이도록 조절하고, 추월할 때에도 더 여유를 두는 것이 좋다.



